

농촌유학에서 정주로

아이들이 머무는 진안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의 이야기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아온 마을

“요즘 애들 소리 듣기가 어려운데
이 집만 오면 애들 소리가 많이 나서 좋아.”



농촌유학은 성공적인 출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농촌유학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유입에서 정주로

몇 명을 데려올 것인가?



왜 계속 살고 싶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과제 사람과 관계

아이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두 번째 과제 교육의 연속성

초등학교의 좋은 경험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 진안에서 교육해도 괜찮을까?”

세 번째 과제 아이들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주를 만드는 4개의 힘

01

아이

농촌유학생이 아니라
진안의 학생

02

교육

초등에서
중·고등까지

03

지역

기존 주민과
함께

04

행정

아이를
지역의 구성원으로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일입니다.

구분에서 공동체로

농촌유학생이 아니라 진안의 학생
농촌유학 가정이 아니라 진안의 가정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주민

아이들을 데려오는 진안을 넘어

아이들이 머무는 진안으로

“나는 진안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도 좋겠다.”

사진 출처

01 진안교육지원청·전북교육소식 —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 관련 사진

02 아주경제 — 진안 조림초 농촌유학 현장 사진

03 동아일보 — 진안 농촌유학 학교 현장 사진

04 진안 마이산·농촌 풍경 — 발표자료용 사진